



K리그, 대표팀 차출 수용

“대승적 차원 양보”... 23일 소집 응하기로

아시아컵축구 대표팀 차출을 놓고 대한축구협회와 충돌을 빚었던 프로축구연맹이 협회와 고집하는 소집 시한인 23일 오전 차출에 응하기로 했다.

김원동 프로연맹 사무총장은 2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연맹 긴급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팀의 우승을 염원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회의 선수 차출에 응하겠다”며 이사회 결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23일이 소집 규정상 맞다는 건 인정하지만 오전이 아니라 당일 K-리그

경기가 끝난 뒤 오후 10시나 11시에 소집에 응해도 연맹이 규정을 어기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다만 대표팀의 주요 해외파 선수들이 부상한 약조건에서 국민의 염원인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해 협회의 소집 시한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3일 대표선수 없이 치러야 하는 K-리그 경기는 리그 일정이 모두 끝난 뒤인 10월14일 오후 3시에 최종전으로 일제히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선 10월13일 예정돼 있는 대표팀 A매치

를 취소해 대표 선수들이 다음날 K-리그 경기를 뛰 수 있도록 협회와 합의했다.

김원동 총장은 “대표 선수 없이 K-리그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입장이다. 대표 선수들이 포함된 수준 높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의무다.

A매치 취소는 협회와 약속했다. 그 날짜가 아니면 경기 일자가 나올 수가 없다. 1, 2 경기를 연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라운드 전체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정 개정 의견은 없었나”는 질문에 “현 규정은 가장 한국적인 규정으로 맞췄고 합의한 것이어서 원칙이 지켜지면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개정 논의는 없었음을 밝혔다.

■ K리그-대표팀 갈등 사라졌나

소집시간 이전... 또다른 불씨

프로연맹 “밤 12시” VS 축구협 “낮 12시”

한국 축구가 한 바탕 흥역을 치르고 아시아컵을 향한 땀을 흘리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이 23일로 잡혀있던 K-리그 경기를 10월14일로 연기하면서 펄 베어백 감독의 요구대로 23일 오전부터 대표 선수들을 보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나흘간 축구를 벌일 수 없었던 뒤흔들었던 차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사상 초유의 차출 거부로 올림픽대표팀의 카타르 국제대회 출전을 무산시켰던 K-리그가 ‘한 발 후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프로연맹은 21일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또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며 리그와 대표팀이 공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이사회회의 한 참석자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이사회를 열지 말자”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단언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프로연맹과 대한축

구협회 사이에 여전히 시각 차가 존재하고 있다.

김원동 프로연맹 사무총장은 “14일 전 소집이라면 23일이 맞지만 통상 리그 경기가 있으면 경기를 하고 밤 12시까지 선수들을 보내주면 된다. 이런 점에서 연맹이 원칙을 어겨야 한 건 아니다”고 “명분”을 찾은 반면 이영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전날 “대표팀 소집은 관행적으로 낮 12시에 해왔고 소집 당일부터 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며칠 전 소집’이라는 규정에 리그 대회가 끼어 있을 경우 갈등이 재연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는 셈이다.



“내 불인데” 21일 오후 원주지자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전국대학농구 1차 연맹전 단국대와 성균관대의 경기에서 성균관 조호현(앞쪽)과 단국대 문형준이 치열한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부터 태권도 동메달 2개로 늘어난다

2008 베이징올림픽부터 태권도에 걸린 동메달이 두 개로 늘어난다.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 조정원)은 2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 숫자를 두 개로 늘려 달라는 연맹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WTF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IOC 경기 국장은 최근 조정원 총재에게 보낸 서신에서 “IOC는 WTF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하계올림픽부터 태권도 동메달 2개를 대당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2000년 시드니대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남녀 각 4세급 경기로 치러져 왔으며, 각 체급에 금, 은, 동메달 각 1개가 수여됐다.

WTF는 지난 4월10일 IOC에 공문을 보내 다른 종목처럼 선수들의 안전보조 차원에서 태권도에도 각 체급별 동메달을 두 개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전 올림픽에서는 결승 진출자에게 패한 선수들이 3위 동메달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패자부활전을 거쳤다.

이번 IOC의 결정에 따라 WTF는 패자부활전을 포함한 세부적인 올림픽 경기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마복싱 헤드기어 20년만에 퇴출될듯

아마추어복싱의 상징으로 정착된 헤드기어가 20여 년 만에 링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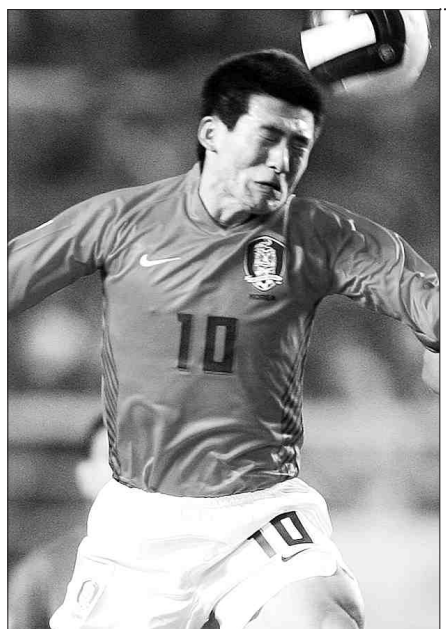
국제아마복싱연맹(AIBA)은 2분 4라운드로 진행되는 현재 아마복싱 경기시간을 3분 3라운드로 늘리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선수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 온 헤드기어를 버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AP통신이 전했다.

아마복싱에서 사라진 화려한 KO 승부를 나오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AIBA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확정했고, 의무분과위원회 검토가 끝나면 10월 세계선수권대회(미국 시카고)와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제외한 8월 이후 모든 국제대회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회장 김성은)에 따르면 AIBA가 올들어 각국 연맹을 상대로 아마복싱 발전방안을 모색한 결과 헤드기어를 벗겨 KO 승부를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바르셀로나올림픽 이래 홍코너-빨간색, 청코너-파란색으로 단조로워진 트렁크도 각국 고유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장은 ‘김남일 대체 요원’ 베어백호 합류

오장은(22·울산·사진)이 부상으로 아시아컵 축구 최종엔트리에서 빠지게 된 베어백호 주장 김남일(30·수원)의 대체 요원으로 뽑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펄 베어백 감독이 코칭스태프와 회의를 거친 결과 부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김남일 대신 예비 명단에 있던 오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룰 때부터 줄곧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일은 최근 탈장의 일종인 ‘스포츠헤르니아’ 판정을 받았으며 22일 일본으로 출국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베어백 감독이 오장을 발탁한 것은 수비형 및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장은 청소년대표팀 미드필더 출신으로 15세 때인 2000년 벨기에로 축구유학을 떠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은 유망주.

이듬해에는 일본 J-리그 FC 도쿄에서 뛰다 부상으로 2005년 K-리그 대구 FC로 돌아온 오장은 2006년 32경기에 출전해 6골을 넣는 눈부신 활약을 펼친 뒤 올해 초 이적 시장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울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2일(금)

- ▲메이저리그(LA다저스-토론토)(08:00·Xports)
- ▲제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13:50·MBC)
-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3차투어 2R(14:00·Xports·KBSN Sports)
- ▲프로야구(삼성-한화)(17:50·SBS스포츠), (롯데-현대)(18:00·KBSN Sports), <두산-KIA>(18:30·MBC ESPN)
- 23일(토)
- ▲PGA투어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2R(04:00·SBS스포츠)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헬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형서점내)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LC타워(주)
☎(대)972-8004, 헬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명메이커 운집

-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 병의원 임대 50~250평
-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 사무실 임대 27~400평

사업 동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교환 환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

- 중개업자 중개 환영 -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헬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 중상로 대지 75평 5층건물 2억 1,700만 21억
- 광복로 평화로간 도로변 5층 1,950㎡ 3,800만 20억
- 연대문로 대지 75평 3층 8,000㎡ 800만 10억
- 회동 15m x 50m 3층 30평 5층 285평 270만 3억
- 광동로 원안역간 도로변 89평 2억 9,000만 20억
- 광안구 도로변 112평 단층건물 10억
- 조대 대로변 대지 226평 단층 평면 350만원
- 광동로 중앙아파트 도로변 330평 단층 400만

토지매매

- 울림동 신라대사당앞 도로변 480평 당 200만 (전체전용지)
- 주월동 장미아파트 앞 대지 200평 당 250만
- 광·송간 광명천역 앞 도로변 1,400평 당 100만
- 봉선동 25m 도로변 700평 당 300만
- 광동로 아파트 빌딩지대 인근 800평 당 200만
- 문흥동 삼성아파트 후방역 코너 192평 당 200만
- 문흥동 개방재한구 앞 1만평 당 1만5천
- 도원동 60m 도로변 500평 당 2천
- 유현동 2천평, 당 650만
- 신안동 현대앞 도로변 1,300평 당 150만
- 신안동 현대앞 1,000평 당 90만
- 지산동 대지 1,100평 당 35만
- 신교동 임야 4만평 당 1만
- 광안구 덕림동 관리지역 3,200평 당 6만
- 화순 도곡 임야(아산) 3만평 당 1만
- 화순 도곡 관리지역 3만평 당 3만
- 화순 도곡역 앞 인근 관리지역 2만평 당 1만
- 화순 남면 개곡동 관리지역 6만평 당 1만
- 담양동 임야(아산) 2,700평 당 6만

전원주택

- 울림동 성촌부락 대지 160평 당 130만
- 화순 동곡 부락 대지 340평 당 30만
- 화순 동곡 부락 대지 280평 당 50만
- 화순 남면 한옥 대지 200평 4,000만
- 화순 남면 대지, 전 1천750평 1억
- 담양 정령 소재 대지 700평 당 30만

기타부동산

- 화순 한천 금전지역 사위 임야 6만6천 평 7천7천
- 화순 계곡동 임야 14만평 당 4천원(임대 가능, 기로수식)
- 화순 남면 개곡동 주택 1동 3천평 당 3만
- 화순 남면 임야 3만평 당 5천원
- 장흥 화진 바닷가길 황포주막 4천평 당 10만

※광주지역 관리지역 임야, 전, 담 구함
※황포주막 동호인을 모집합니다

한일지도판매(주)
☎(대)529-1409, 헬010-2466-1409
(지산동점 법원앞)

2007 최신 광주지도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미 기록된 부분

- 13P 반월리 APT없음, 친정APT가 신도 브레뉴APT로 바뀌지 않았음
- 13P 첨단 2지구 주공APT 배치도 2개 없음
- 14P 원삼각마을, 하월삼마을, 2차 해제 변경
- 20P 서원지구 상업지역 변경
- 28P 보경APT 배치도 없음
- 28P 삼부지구에서 신기리로 나가는 계획수 삭제된대 나 있음
- 38P 선운사 위로 풍양동으로 연결된 계획수 없음
- 40P 대우 포아레 APT 배치도 안나왔음
- 42P 미래도 빌라 안나왔음
- 49P 책 가운데 김치타운으로 연결된 계획수 없음
- 50P 호반메트로APT 2차 안나왔음
- 51P 중상사 이주단지 배치도 없음
- 56P 김치타운 위로 풍양동으로 연결된 계획수 없음
- 56P 호천1택지 1차, 2차 주공APT없음
- 57P 호천2택지 3차, 4차 APT 배치도 없음
- 57P 진월 택지개발지구 택지지번 안나왔음
- 57P 진월 택지 주공APT 배치도 6-7차 배치도 안나왔음
- 61P 한일 apt인데 구·빛고을 APT로 나옴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잘 판단하여 선택하십시오!

운양동점
☎(062)527-6310
헬011-9433-6310

호성공인중개사
☎(대)521-6024 헬011-602-4207
(용봉지구 하이마트교차로 앞)

대지매매 (교회, 원, 투룸부지)

- 북구 양산지구 대지 1,000평, 500평 3면도로 접 평당 135만
- 교회, 원, 투룸부지, 물류창고, 사우나, 투지적합

물류창고, 공장부지

- 광안구 수원동 자연녹지 1,300평 3면 도로 접 대형차량 진입가능 매매 평당 95만원
- 하남공단내 2차선도로변 코너 대지 1500평 건평 800평 평당가 130만원 물류창고 허가됨

실버타운, 노인병원 건축물 하차장 부지

- 담양 월산동 2차선 국도접 대지 11,000평 평당 16만원 (투자적합)

상가 및 사옥부지 매매

- 운양동아파트 대단지 입구코너 대지 92평 평당가 1,150만원
- 신안동 6차선 대로변 610평 평당가 260만원(사옥 및 물류창고 적합)

상가건물 매매

- 광안구 운남동 대390평 건1,400평 지하1, 지상4층 4500세 대 아파트 중심상가 부24억 월 3,200만 매56억

사우나 건물매매

- 서구 대지 400평 건평 1,200평 매매가 40억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구코너 최고요지 지하1층 지상5층 사우나·헬스 직업, 기타 1층임대 보증금 1억5천 월1,200만원, 성황리 운영 중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목장,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 북구 문흥동 임야2200평 당15만 투지최적
- 함평 월야면 외치리 삼거리코너 대지340평 국유지포함600평 차집, 주유소,휴게실적합한42만 조침가
- 광안구 삼거리 주택 대지100평 매4500만
- 남구 양산동 주거지역1200평 당 70만 실버타운,물류창고적합
- 동구 유동동 주거지역 1000평 당70만 도로접,물류창고적합
- 서구 용두동 임야4000평 당10만 6차선접 투지최적
- 담양군 수북면 담900평 당7만 양면도로접
- 화순읍 중앙면 전 200평 평당 4만5천 관리지역 면적확대지정임야있음
- 남구 양산동 대지330평 당55만 전원주택적합
- 북구 함평동 대지200평 당55만 창고전원주택적합
- 광안구 신창동 자연녹지720평 당70만 도로접 유지비물류창고적합
- 남구 화정동 주거지역 820평 당30만 전원주택 투지최적
- 서구 용두동 전 2100평 당30만 2차선도로접 투지최적
- 북구 문흥동 전 1000평 주거지역 당120만 2차선 4차선도로접 석당, 물류창고 적합
- 남구 석정동 주거지역 700평 당35만 도로접 유치비, 복지시설적합
- 서구 매월동 임야30만 분할가
- 지 1800평 당130만 분할가
- 서구 매월동 대지 800평 150만 물류창고 전원주택 적합
- 남평 수원동 전 2500평 대지포함 주거지역 도로접 당45만
- 서구 용두동 임야 3천평, 7천평 분할가 당7만 투지최적

화순읍근교 전원주택지 다양 보유

(주)홈콘부동산 리서치
T.(062)385-9994, 233-2222 상무지구 주택공사옆

一生 최대의 쇼핑! 당사는 名品을 취급합니다.

당사는 **광주 전역**을 손금 보듯이 봅니다.

당사는 **미시적 거시적 부동산 흐름**을 통합니다.

당사는 **광주 전역**을 매물로 가정합니다.

당사는 **5억원 이상만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정밀한 법인업무 등**에도 꼭 맞습니다.

당사는 **광주 또는 상무지구로 통하는** 목표입니다.

당사는 **열정적이고 정돈된 인재만 확보합니다.**

당사 대표 주요 경력

- 전남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삼성그룹 기업법무 약 10년
- 해외합작계약, M&A계약
- (주)갤러리온, 기업성정, IR업무 등
- (주)갤러리온 운영법인 대표(시내)
- (주)사망방신문사 부사장
- [부동산] 실무 교본 저자
- 주요 방송사 정보제공 및 언론사 부동산재테크 칼럼 기고 중
- 외국기업 등 원어(영어)상담 가능

박길수
부동산 어드바이저

전화 한통화로, 이미 한발 앞서갑니다.

네이버에서 **홈콘부동산** 을 치세요(www.homecon.co.kr)